

# 한국 이주 노동자의 ‘사이버 공동체’에 관한 연구\*

이정향\*\* · 김영경\*\*\*

## The Study on The Cyber Communities of Migrant Workers in Korea\*

Lee, Jeong Hyang\*\* · Kim, Yeong Kyeong\*\*\*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이주 노동자의 근접성 없는 공동체 중 사이버 공동체의 특성과 공동체에서 형성되고 재 생산되는 사회적 자본과 한국 사회에서의 문화적응과 관련성에 대한 고찰이다. 연구 결과 이주 노동자 사이버 공동체 참여 특성에 의하면 민족 단위의 사이버 공동체와 비 민족 공동체 간에는 응집의 강도(強度), 공간 제한성, 외부 사회와의 연결성 등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민족단위의 공동체는 ‘국지화된 공동체’ 유형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주된 참여 동기는 협업과 공유 보다는 구성원 간의 ‘소통과 친목, 교류’ 등이며 이를 위해 소통·관계형 매체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비 민족 단위의 공동체는 ‘통합형’ 유형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으며 가입 절차의 까다로움이나 한국어로 정보가 제공되는 점 등이 참여의 어려움으로 부각되고 있다. 사이버 공동체 내부에서 이주 노동자 속성에 따른 사회자본의 유의미한 추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사회자본 요소인 신뢰, 규범, 네트워크, 정치 참여의 네 범주는 서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사이버 공동체 사회 자본이 한국 사회에서의 통합형 문화적응에 정비례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이주 노동자의 사이버 공동체에서 형성되는 정치 이슈 토론, 개인(인권) 문제 토로, 시민운동 참여 등이 다문화사회에서의 문화적응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로 한국 이주노동자의 사이버 공동체가 한국의 원 문화와 이주 문화가 소통하고 통합되는 부분에서 중요한 매개로 작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향후 긍정적인 사회·문화적 호명의 대상이 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어**: 이주 노동자, 근접성 없는 공동체, 사이버 공동체, 공동체 유형, 사회자본, 문화적응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cyber communities composed of migrant workers from communities without propinquity in Korea. Its methods are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It further seeks to discov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capital formed and reproduced within these cyber communities and participants' cultural adaptation to Korean society. The study revealed that ethnic and non-ethnic communities differed in terms of strength of cohesion, space constraints, and links with the outside world. The former showed characteristics of a localized community type. The main motivations for migrant workers' participation in the ethnic cyber community were communication and friendship rather than cooperation and sharing among members. They usually used cyber communication media to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Conversely, the latter showed characteristics of an integrative type. Despite the difficulties in applying for membership and information provided in Korean, a high percentage of migrant workers participated in the community to obtain crucial information. The results did not show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social capital and migrant workers' traits within the cyber community, while a strong correlation emerged among four factors of social capital: faith, norms, networking, and political participation. The study showed that social capital in the cyber community was in direct proportion to an integrative type of cultural adaptation to Korean society. In particular, there was a strong connection between the cultural adaptation exhibited by members of the migrant subculture and their participation in discussions on political issues and human rights, with some migrants even functioning as agents of social change as participants in citizens' movements.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cyber community facilitates the migrant subculture's communication with and integration into the indigenous Korean culture. Migrant workers' participation in the cyber community is therefore validated as an instrumental practice for members of this subculture to adapt to Korean society.

**Key Words**: migrant workers, communities without propinquity, cyber community, community type, social capital, cultural adaptation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NRF-2010-413-B00023)

\*\*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소 연구교수(Research Professor, Institute for Multicultural Studie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porte83@naver.com)

\*\*\* 대구가톨릭대학교 지리교육과 강사(Lecture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athoic University of Daegu)(chungrha@cu.ac.kr)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지구화라는 거시적 환경의 변화로 경제 발전의 불균등성, 이동성, 문화적 동질 등이 초래되어 공동체의 응집력이 감소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그러한 변화의 대응으로 재형성되고 있는 것 역시 ‘공동체’이다. 최근 다양한 사회적 환경 형성과 매체의 발달로 주거기반이 없더라도 많은 공동체 형성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가 등장하면서 다양한 지표(指標)에 의해 경계되는 서로 다른 공동체가 공동체 범주에 추가되고 있다. ‘근접성 없는 공동체(communities without propinquity)’<sup>1)</sup> 역시 그러한 유형의 공동체이다. 비 장소적 혹은 확대 공동체라고도 불리는 ‘근접성 없는 공동체(communities without propinquity)’는 구성원이 공유하는 의도와 선택에 의해 공동체 지속이 가능하며 장소의 구속이 없다는 점과 저항<sup>2)</sup>적인 요소를 지님으로써 주류문화(majority culture)가 반영되지 않는 점으로 특징지어지기도 한다. 사이버 공동체 역시 장소의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기술이 매개하는 자유로움에 기반을 두는 비 근접성 공동체이다. 이러한 비 근접성 공동체는 동료애, 연대, 상호부조, 정책 인식, 다수자 문화 수용 태도, 정보 획득, 공통의 정치 목적 등이 공동체 내의 비가시적, 가상적 공간을 통해 매우 능동적으로 투영된다. 특히 지역사회 활동과 참여의 어려움 등으로 근린공동체 적응이 어려운 이주자들에게는 적응 과정에서의 대안이 될 수 있고 그들의 사회 자본 형성의 파이프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즉 근접성 없는 공동체는 이주자 구성원의 개별적 정체성을 자유롭게 연결하고 실천하고 그 산물을 재생산하는 의미 구조체로서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주 노동자의 ‘사이버 공동체’ 연구는 그들의 자조집단과 지지망의 형성 방식에 대한 구명 뿐 아니라 그 곳에서 구현되는 사회자본과 다양한 스케일의 지리적 영역을 이해하는 체계적인 접근 통로로서도 매우 가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주자의 공동체에 관한 연구는 지역사회 적응 변인으로서 근린 공동체 생활 정도를 검토하거나 특정 장소를 기반으로 한 특정 근린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결혼 이주자 중심의 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에서 이주자 유형 중 가장 양적 비율이 높은 이주 노동자의 ‘근접성 없는 공동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이주 노동자가 소속된 근접성 없는 공동체(communities without propinquity) 가운데 ‘사이버 공동체’를 대상으로 이주 노동자의 참여와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통해 이주 노동자 사이버 공동체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주 노동자의 공동체 내부에 공유된 사회자본 특징과 그 요소를 분석하여 요소들 간 관련성 그리고 문화적응에 대한 동인으로서 영향을 탐구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사이버 공동체의 특성을 구명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1) 사이버 공동체

1980년대 이후 공동체라는 관념은 일종의 의미 내지 상상의 구조로서 새롭게 이론화되면서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이는 바로 ‘근린지구 공동체’의 존속에 대한 논쟁에서 비롯된다.

일부 근린지구가 공동체와 반드시 일치해야만 한다는 관념을 비판하는 학자들은 주거기반(장소)이라는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도 상호작용과 상호지지 관계를 가진 많은 ‘공동체들’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많다고 주장한다. Webber (1963)는 공간상에 드러나지 않는 이러한 공동체를 ‘근접성 없는 공동체(communities without propinquity)’로 부르고, John Silk(1999)는 이를 ‘비장소적(place-free)’ 혹은 ‘확대(stretched-out)’ 공동체라고 이름 지었다.

‘사이버 공동체’ 혹은 ‘가상 공동체’도 새로운 형태의 사회관계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는 장소의 한계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기술이 부여하는 자유로움에 기반 한다. 사이버 공동체는 1960년대 반문화운동, 70년대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컴퓨터통신 실험과 90년대 인터넷의 확산을 매개로 새로운 공동체 형태로 등장했다.

사이버 예찬론자는 가상의 공간에서 형성되는 사회관계는 공간적 근접성이나 우연함의 산물이 아닌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기존의 구속적, 억압적 형태의 공동체가 지닌 한계를 극복할 것이

며, 구성원은 대면접촉 공동체에서 보다 더욱 강한 사회적 응집력과 책임감을 가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이버 공동체와 같은 가상 공동체의 성격을 좌우하는 것은 지역성, 익명성, 상업성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역을 초월하는 특징은 가장 사이버 공동체를 잘 특징지어 주는 요소이다. 그러나 사이버 공동체가 정보공간, 혹은 현실공간에 지역거점을 재생산하는 현상도 발견(Rheingold, 1993)<sup>3)</sup>되며 구성원 간 응집도, 외부에 대한 개방성 등 근접 공동체의 특징도 함유하고 있다.

## (2) 사회자본(Social Capital)

사회자본이란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개인, 집단, 국가 등의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강조되는 무형재이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에 대해 학자들은 다양한 시각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자본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분석을 한 Bourdieu (1986)는 사회자본을 지속적인 네트워크 혹은 상호 면식이나 인정이 제도화된 관계의 구성원이 됨으로서 획득되는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이라고 정의하였다.

미국의 정치학자 Putnam(1993; 2000)은 “행위의 조정을 촉진하여 사회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 조직의 속성”이라고 사회자본을 설명하면서 공공 이슈에 대한 ‘시민적 참여 네트워크’와 ‘상호부조’와 같은 규범의 형태로 전승될 때 자발적인 협력에 의해 사회자본이 생성, 유지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라는 각각 다른 개념을 하나로 묶는 포괄적인 설명으로 의미를 가진다. 이에 비해 Dasgupta(2005)는 사회자본의 개념보다 더 근원으로 내려가서 서로 협동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문제가 무엇인지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사회자본은 합의된 상호강제 구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 사이의 네트워크”라고 하여 신뢰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자에 따라 규범이나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의 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회자본이 사람들 간에 발생하는 사회적 상호관계에 기초

한다는 데에는 일치를 보이고 있다.

## (3) 사이버 공동체의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

사이버 공동체의 사회자본과 관련된 기존 연구는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형성된 사이버 공동체가 장기적으로 협력과 호혜를 증진시키고 신뢰의 확대로 사회자본을 구축한다는 입장과 정보화로 인해 공동체의 와해를 가져와서 오히려 사회자본의 감소와 참여의 퇴보를 가져온다는 입장으로 나뉜다.

사이버 공동체에 대한 낙관적 입장은 정보기술의 민주적 가능성(democratic potential)을 중심으로 본다. 유석진(2000)은 정보화를 통해 정보의 생산·유통·소비와 관련된 거래비용 감소와 참여의 비용감소, 그리고 정치적 사안에 대한 심의(deliveration) 가능성 증대 등을 제시하고 장용호(2002)도 한국의 사이버 공동체가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가지며 신뢰와 규범의 사회자본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증명했으며 송경재(2006)는 오프라인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사이버 공동체도 장기적으로 신뢰, 규범, 수평적 네트워크를 가지는 사회자본이 형성되면서 정치 참여도 정비례해서 증가한다는 점과 그럼으로 현실 참여의 방식을 풍부하게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비관적인 입장에서는 사이버 공동체가 면대면(face-to-face) 커뮤니케이션과 커넥션(connection)을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연대성(social solidarity)을 약화시켜 공동체 활동을 제한할 것이라고 전망한다(Holmes, 1997; 윤성이, 2001). 즉 현실 기반이 없는 사이버 공동체의 미약한 지속성이 사회자본의 쇠퇴를 초래하고 기존 공동체적인 질서의 해체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 외 유보론자들은 인터넷 네트워크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공동체가 사회자본과 시민성을 강화시키고 정치참여를 증대시킬 지에 대한 경험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주장(황용석, 2001, 423)하여 비관론과 부분적으로 맥락을 같이 한다.

이와 같은 사이버 공동체 사회자본에 대한 시각은 정보화가 주는 민주적 가능성 대 사이버 공간의 비현실적 특성이 연대감의 약화를 초래한다는 입장, 즉 근접성 여부에 따른 시각의 차로 대별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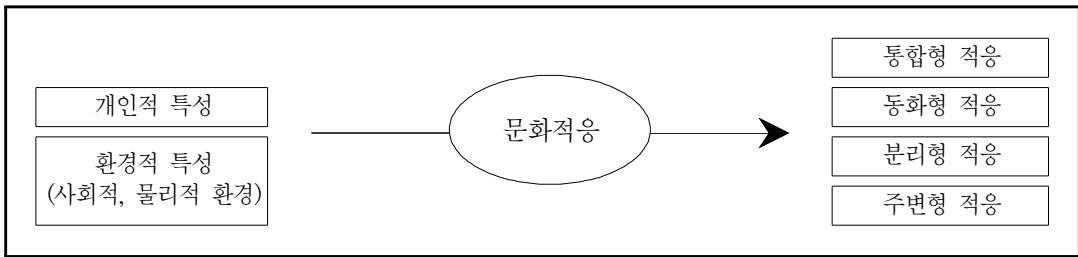


그림 1. 문화 적응 과정 모형

는 듯 보이거나 연대감의 문제는 오늘날 공동체 없는 근접의 근린지구가 당연한 문제이기도 하므로 두 입장에 대한 지속적인 학문적 접근과 관찰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4) 문화 적응

지난 한 세기 동안 문화적응의 개념은 인류학, 심리학, 사회학 등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에 의해 다시 다양하게 정의되었으나 일반적으로 문화적응 현상이 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이 속했던 원문화 사회를 떠나 새로운 문화(주류문화)로 이주하고 그 새로운 문화에 존재하는 사회적 가치관, 관습, 언어, 사회체계 등을 접하게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행동 및 사고 양식의 변화라는 점에 는 같은 견해를 가진다.

Berry(1997)에 의한 문화적응 연구에 따르면 문화적응은 이주민 집단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로 겪는 집단 문화적응과 이주민 각 개인이 경험하는 심리적 차원의 문화적응으로 나누어진다. 두 차원의 문화적응 중에서 특별히 개인의 심리적 문화적응은 이주민 집단에 속한 개인의 심리적 차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고 파생되므로 Berry(1997)는 이주민 개개인이 지니는 다양한 속성과 문화적응 정도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주민의 문화 적응 현상에 대한 또 다른 연구의 틀은 원문화와 주류문화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차원의 문화적응 현상 및 개념화에 바탕을 둔다. 초기 대부분의 문화적응 연구들은 소수민족들이 주류문화에 얼마나 잘 동화되는가에 초점 맞추어 진행되었다. 이러한 이론적 관점을 단일차원문화적응이론이라 한다(Nguyen et al.,

1999). 단일차원문화이론에서 문화 적응의 의미는 원문화 관련 가치나 신념체계가 이주된 지역의 주류 문화 및 관련 가치나 신념체계로 대체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단일차원문화적응이론은 이주민의 양 문화(원문화와 주류문화)의 가치에 대한 성향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는 단점 때문에 비판 받았으며 이러한 비판에 따라 1980년대 이후 Berry(1980; 1990; 1997)를 중심으로 이차원문화적응이론이 대두되었다. 이 두 가지 차원을 바탕으로 하여 Berry(1990; 1997)는 이주민의 문화적응을 통합(integration), 동화(assimilation), 분리(separation), 주변(marginalization)의 네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가운데 통합형 문화적응은 문화적응의 이상적인 유형으로 새로운 이질적인 문화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자신이 몸담고 있던 문화와 비교하면서 비판과 수용을 통해 두 문화를 통합하는 새로운 안목을 가지는 유형이다.

Berry(1980; 1990; 1997)에 따르면 이주민들의 문화적응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크게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개인의 특성과 처한 상황이 매우 다양한 만큼 이주민들의 문화적응과정 역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환경적 요인으로 사회적 환경, 물리적 환경을 들 수 있는 데 사회적 환경으로는 문화적 배경, 정책, 또래집단(동질집단), 매스미디어와 같은 매개체를 들 수 있으며 물리적 환경으로는 지위 환경과 구조 환경 등으로 개념화된다. 이는 이주민의 사이버 공동체 역시 이주민의 사회적, 물리적 환경의 부분으로서 문화적응의 형태와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2. 연구의 방법 및 연구내용

### 1) 연구의 대상과 범위

본 연구에서의 주 연구 대상은 D-3, E-8, E-9, E-10, H-2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한국 이주 노동자의 모든 '사이버 공동체' 및 그 참여 주체인 이주 노동자이나, 면담, 설문 등 직접 조사 대상은 대구시와 인근 중소 도시지역에 위치한 일터의 이주노동자들로 한정하며 연구기간은 2012년 12월에서 2013년 3월까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Rheingold(1993), Fernback and Thompson(1995)과 그 외의 학자들이 정의한 개념을 조합하여 사이버 공동체를 '주체와 관심에 따른 경계(net)를 가지고 사이버 공간상에서 지속적인 만남과 공공 토론을 수행하는 사회적 집단'으로 규정하고 공동체 활동에 대한 이주 노동자들의 인식을 통해 참여 특성을 조사하였다. 공동체 네트워크 지원 매체로는 블로그를 포함하여, 아프리카 TV와 같은 라이브캐스팅과 유튜브와 같은 콘텐츠 커뮤니티, 또한 최근 주목받고 있는 팟캐스트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인 소셜 미디어와 보이스트록(voice talk), 바이버(viber), 스카이프(skype) 등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하였다.

### 2) 연구내용 및 분석

본 연구에서의 자료 수집은 웹사이트를 통한 조사방법과 이주 노동자를 직접 대면하여 수집하는 직, 간접 방법을 동시에 수행하였으며 대면 조사 시에는 설문과 함께 인터뷰 등의 정성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은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 측정을 위한 통합설문지(Integrated Questionnaire for the Measurement of Social Capital)를 연구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하였으며 표본은 대구시와 근교 지역 이주 노동자 약 120명 <표 2>를 대상으로 하여 임의 표본추출 방식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의 구성은 공동체 참여 수단, 참여 빈도, 공동체 유형 등의 공동체 참여 특성에 관한 일반 속성 질문 문항과 공동체 사회적 자본화 특성과 사회적 적응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5점 척도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항목은 기본적 속성과 공동체 참여를 질문하는 부분, 그리고 사회자본 부분과 사회 적응 부분으로 구성하고 있다. 공동체 참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참여 수단과 참여 시간, 참여 빈도, 선호 공동체, 구성원과의 관계<sup>4)</sup> 등을 질문하였으며 이주 노동자 '사이버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 규정을 위한 지표(변수)로 신뢰 및 연대, 규범 및 규칙, 네트워크, 정치 참여의 네 가지 그 핵심적 지표(요소)를 변수로 설정하고 각 변수를 조작하여 구성하였다. 신뢰(trust) 및 연대(solidarity)는 World Bank(2003)의 공동체의 이용성, 만족감, 연대의 강도, 교류, 상호 도움의 여부, 활동의 제약 여부, 공동 요소인 소속감(정체성) Warren and Warren(1977) 등을, 규범(norms)은 가치 추구에 대한 동의 여부, 공유된 의미체계, 네트워크(network)는 공동체 노드(node) 자체의 의사결정의 특징과 상호 관계성을, 정치적 참여(political participation)는 개인문제의 표현, 사회적 문제에 대한 토로, 시민운동 참여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적응과 관련하여 Phinney(2007)의 문화 적응 개념과 Berry(1990; 1991; 1997; 2005)의 이차원 문화 적응이론에 근거하여 원 문화에 대한 방향성과 이주민 문화에 대한 방향성이라는 이차원을 바탕으로, 원 문화의 가치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주류문화를 수용하는 태도에 대한 인식 정도를 조사하였다.

조사는 온라인상으로 이주 노동자의 공동체를 파악한 후 지역 이주자 지원센터와 관계 기관을 방문하여 이주 노동자와 개별 만남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방법은 직접조사에 의한 자기평가기입방식(self-administration method)을 적용하였고 자료의 정량적 측정과 분석은 엑셀과 SPSS 10.0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이주 노동자의 사이버 공동체 참여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으로 수집된 자료는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술적 분석을 하였으며 사회적 자본과 각 속성과의 인과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요인분석 및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심층 인터뷰에서는 공동체 활동 행태와 참여 동기, 참여의 어려운 점, 공동체 구성원들의 속성 등과 Warren and Warren(1977)의 세 가지 강도 결정 요인을 원용하여 공동체의 응집 정도를 알아보

았으며 공동체 활동의 지리적 범주에 대해서도 파악하였다. 심층 인터뷰 등의 면담에서 수집된 비계량적 자료는 기술(記述)을 통해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 3. 한국 이주 노동자 ‘사이버 공동체’의 공동체 특성 규명

#### 1) 한국 이주 노동자 ‘사이버 공동체’ 참여 및 인식의 특성

##### (1) 질적 연구

본 조사를 위한 심층 인터뷰는 한국 이주 노동자 계층의 사회적 위치와 개인적 상황 때문에 접근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본 조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이버 공동체에 대한 개념 정의와 면접의 경위 및 지침을 알기 쉽게 설명한 후 가상 공동체 이용 행태와 참여 동기, 사이버 공동체에 대한 인식 (참여의 어려움, 공동체 구성원의 속성과 활동), 오프라인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질문에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뷰 조사는 설문조사와 병행하여 2013년 1월 12일부터 2013년 3월 3일까지 약 8 주 간 매 주 일요일에 이루어졌으며, 인터뷰는 1인당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인터뷰 장소는 주로 이주 노동자 상담 센터와 기타 지역을 방문하여 실시하였으며 주변인과 분리된 공간을 확보하여 실시하였다.

##### 가. 사이버 공동체 활동 행태와 참여 동기

본 연구의 면담에 응한 이주 노동자는 전원 사이버 공동체의 구성원이었으며 소셜 미디어 가입을 통한 적극적 참여 활동에서 스마트폰 응용 애플리케이션 이용까지 비교적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었다.

사이버 참여 동기에 대한 물음에 응답자들은 공통적으로 민족 단위의 공동체는 실시간 소통과 친목, 교류를 위한 것이라고 전원 응답했다. 응답자 중 8명(A와 C를 제외한 응답자들)이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그들 모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 보이스트, 스카이프, 바이버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하루에 수 회 자신의 가족, 친척, 친구와 통화하고 있다고 하여 강한 연대감을 표현하고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주된 이용 동기로서 ‘실시간 소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국내외 상관없이 가입자 간에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그 외에 이용하는 SNS의 종류로는 페이스북(C, U, K\*, B, G, Sh)과 유튜브(A, C, U, K, B)를 꼽았으나 그 참여 정도가 높지는 않다고 응답하였다. 소통과 공유를 위한 SNS 주된 이용 동기로 ‘범지구적으로 편리하게 연결 가능’하며, ‘즐거움을 공유하고 휴식에 도움을 줌과 동시에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이 편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민족, 인종 등의 속성을 넘어 다양한 구성원과의 만남을 위하여 한국형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

표 1. 심층 인터뷰 응답자 속성

	이름 (이니셜)	국적	한국 체류기간	성별	직종	공동체 활동 기간	근무지
1	K	베트남	3년	남	양돈	2년	경남 창녕읍
2	C	중국(漢族)	3년	여	식당	1년 6개월	경북 진량읍
3	A	방글라데시	2년	남	섬유재단	2년	대구시 성서
4	U	우즈베키스탄	3년	남	용접	2년 8개월	경북 남산면
5	S	중국(조선족)	4년	여	봉제	3년	경북 남산면
6	K*	인도네시아	2년	남	플라스틱 성형	1년	경북 진량읍
7	B	몽골	1년	남	휴대폰 조립	6개월	대구시 성서
8	G	필리핀	3년	남	포장	2년 8개월	대구시침산동
9	R	네팔	3년	남	비닐 압축	2년 6개월	경북 진량읍
10	Sh	파키스탄	2년	남	비닐 압축	2년	경북 진량읍

한국 이주 노동자의 '사이버 공동체'에 관한 연구

음 카페나 네이버 카페도 이용하고 있었으며, 주된 이용 동기로 '소통의 목적보다는 게시판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라고 답변(A, U, S, B, R)하여 가입 등의 어려운 점이 있으나 법률, 사회적 적응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필요한 공동체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네트워크 지원 매체 이용행태를 보면 협업과 공유보다는 소통·관계형<sup>5)</sup>에 대한 선호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공동체 참여의 어려운 점

사이버 공동체 참여에서 어려운 점으로 특히 한국형 소셜 미디어의 가입 절차에서의 문제를 꼽았는데, 그 첫째는 자격 요건의 문제이고 둘째가 개인정보의 입력, 셋째가 가입 절차의 복잡성 및 지식의 부족(C, K), 넷째, 한국어로만 지원된다는 것 등을 들었으며 시간의 부족(C, B)도 또한 소셜 미디어로의 접근이 어려운 이유임을 밝혔다. 실제로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한국형 포털 사이트 제공 카페 혹은 블로그보다 자체적으로 제작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였다. 또한 노동 시간으로 인한 시간적 제약과 컴퓨터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직종의 경우, 스마트폰이 필요하나 가입 절차가 까다롭고, 기기 값과 요금이 비싸서 공동체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된다(A, C)고 실토하였다.

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속성과 활동 특성

민족 중심의 사이버 공동체에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모국인들이며 한국인은 거의 없다고 하여 공동체 내에서 한국인과 교류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슷한 시기에 같은 목적으로 한국으로 입국한 이주자들 간에 만남의 빈도가 높고 매우 긴밀한 접촉을 하며 이주 과정과 적응에 관련된 관심사를 공유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 사회에서 요구되는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한국형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활동에서는 국적, 거주 기간, 성 등의 속성에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이 긴밀하게 접촉하고 문제를 공유하며 한국인 운영자 혹은 상담원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인식하고 있어 매체와, 구성원들의 속성과 공동체 가입 목적에 따라 다양한 활동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사이버 공동체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인식

응답자들은 이주 노동자 사이버 공동체의 기능 및 역할로 한국사회에서 외국인 이주민들이 원활한 정착과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락 수단의 역할과 더불어 자국민 간의 교류를 통한 친목도모 및 연대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의 외국인 이주민 관련 정책, 뉴스기사 등을 번역, 제공하여 정보 제공자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림 2. 이주 노동자 사이버 공동체 1



그림 3. 이주 노동자 사이버 공동체 2

(그림 2), 실제 민족 단위의 사이버 공동체의 주된 사용언어는 대부분 자국어이다. 이들은 다음, 네이버 등의 한국형 포털 사이트는 정보 제공자로서 기능을 다하고 이주자 자체 커뮤니티는 친목 도모와 연대를 돕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연대의 강화는 미미하나마 사회적 행동으로 구체화되어 일종의 해방구 역할로서 공동체가 기능하고 있음을 암시하였다.

마. 공동체의 지리적 범주

한국형 포털 사이트 상 사이버 공동체의 경우 “진료, 상담 등 공적인 모임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상담소에서 만나요.”(U, S, G, K\*, R, Sh), “행사 등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번은 국적에 관계없이 사람들을 센터에서 만납니다.” “대개 모임에서 공동체 외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언어, 진료, 법률 등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등의 의견을 내었으며 민족 단위 사이트의 경우 “친분을 위해 한 달에 한번 정도 베트남 친구들과 창녕읍에서 만나 삼겹살 먹어요.”(K) “대개는 사이버 공간에서만 만나고 가끔(1년에 한번) 멀리 안산에서도 친구가 놀러 옵니다. 나도 서울로 가기도 합니다.”(B) 등으로 공동체 활동 범주를 표현하였다.

공동체 활동에 의한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공간상의 어떤 영역으로의 방향성이나 빈도, 범위를 가질까에 대한 관심은 예로부터 있어 왔으며 그 특성을 측정하려는 시도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이버 공동체에서 영역 응집성은 확인이 쉽지 않고 그 범주를 설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이어서 그 지리적 범주에 대한 측정과 분석은 현재 전무한 편이다. 그러나 본 인터뷰에 응한 이주 노동자들 중에 특히 상담소 등 도움 매체를 중심으로 형성된 사이버 공동체에서는 정기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만난다고 하였으며 만남의 장소가 대개 근무지를 축으로 하여 일정 범위 내의 도시 지역이라는 응답을 하여 사이버 공동체의 오프라인 교류에서는 지리적 핵심 영역이 존재함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민족 단위의 이주 노동자 사이버 공동체에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보완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어 온라인 영역 내부에 오프라인 영역이 내재되어 되어 있는 양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와 같은 심층 인터뷰의 응답 자료를 정체성, 상호 작용, 외부와의 접촉(연계성)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 적용하여 분석하면 각 민족 단위의 사이버 공동체는 공간 영역에서 자유롭게 강력한 응집력과 동질성을 지니고 상호작용도 매우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나 외부와의 접촉에는 소극적인 국지화된 유형<sup>6)</sup>의 특징을 가지며 지리적 영역의 중요성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비민족 공동체는 특정한 지리적 영역을 기반으로 국적, 거주 기간, 성 등의 속성과 관계없이 구성원끼리 서로 긴밀하게 접촉하고 관심사를 공유하면서 외부 사회와도 열려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통합적 공동체의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양적 연구

설문에 응한 이주 노동자는 총 120명으로 대부분 대구시 성서와 경산시 인근 공장에 일터를 가

표 2 응답자 속성(n=120)

응답자 속성		비율
성별	남자	55명(46%)
	여자	65명(54%)
국적	중국(한족)	28명(23%)
	중국(조선족)	35명(29%)
	베트남	18명(15%)
	인도네시아	15명(13%)
	방글라데시	9명(8%)
	파키스탄	8명(7%)
	필리핀	7명(6%)
근무지역	대도시	84명(70%)
	중소도시	36명(30%)
한국 거주 기간	1년 미만	21명(18%)
	1년~ 2년	12명(10%)
	2년~ 3년	26명(22%)
	3년 이상	65명(54%)
직업	농/임/어/축산업	2명(1.7%)
	사무직	0명(0%)
	기술직	1명(0.8%)
	판매 /서비스직	0명(0%)
	노동/ 일용직	116명(96.7%)
	기타	1명(0.8%)



진 일용직 노동자들이며 그 외에 한 명의 기술직과 두 명의 축산업 종사자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이 65명이며 남성이 55명으로 여성 이주자 비율이 높으며 그 국적 분포를 보면 중국 (조선족 35명 한족 28명)이 63명으로 가장 많으며, 베트남 18명, 인도네시아 15명, 방글라데시 9명, 파키스탄 8명, 필리핀 7명으로 분포하고 있다. 근무 지역은 대도시 지역이 84명, 중소도시 거주자가 36명으로 도시 지역 노동자 비율이 높으며, 한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65명으로 가장 많으며 2년에서 3년 거주자가 26명 1년 미만 거주자가 21명, 1년

에서 2년 거주한 사람이 12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설문 응답 내용을 분석해 보면 <표 3>에서와 같이 공동체 참여 수단으로 주로 스마트폰이 사용되고 있으며 매일, 30분 이내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 참여 빈도는 높으나 회 당 참여시간은 비교적 짧은 것으로 나타나 심층 인터뷰에서 언급된 시간적 제약과 기기로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다중의 원인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공동체 참여를 위해 이용하는 미디어 혹은 애플리케이션은 페이스북, 미투데이, 트위터, 스카이프, 카카오 톡, 바이버 등 소통·관계형이 80%로 가장 많았으며

표 3. 이주 노동자의 사이버 공동체 참여 및 인식

주된 참여 수단	컴퓨터		4명(3%)
	핸드폰	스마트폰	116명(97%)
		휴대폰	0명(0%)
	기타		0명(0%)
참여 빈도	매일		65명(54%)
	일주일에 3번이상		49명(41%)
	일주일에 한번		6명(5%)
	한 달에 한 번		0명(0%)
참여 시간	하루 30분 이내		118명 (98%)
	하루 30분 ~ 1시간		2명(2%)
	하루 1시간 ~ 2시간		0명(0%)
	하루 2시간 ~ 3시간		0명(0%)
	하루 3시간 ~ 4시간		0명(0%)
	하루 4시간 이상		0명(0%)
이용 미디어 혹은 애플리케이션	소통 -관계형		96명(80%)
	협업 -관계형		1명(0.8%)
	소통 - 공유형		23명(19%)
	협업 - 공유형		0명(0%)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관계	아는 사이(대강 알고 있는 사이)		1(0.8%)
	사교적인 사이(함께 말하고 시간을 보낸다.)		9(7.5%)
	의사소통하는 사이(정보를 공유하고 규칙적 만남을 가진다.)		14(11.7%)
	참여하는 사이(중요한 일에 초대 받는 사이)		35(29.17%)
	집단 적인 참여(공동의 목적을 추진하기 위해 집단적 동참을 한다.)		61(50.8%)
공동체와 외부 간 연결 정도	'우리'와 '그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존재함		64(53.3%)
	'우리'와 '그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음		56(46.7%)

표 4. 응답자의 사회자본과 문화적응에 관한 인식 (n=120)

응답자 속성		사회적 자본					문화 적응	평균
		신뢰	규범	네트워크	정치참여	평균		
성별	남자	3.70	3.59	4.08	3.43	3.70	3.11	3.58
	여자	3.47	3.53	3.78	2.07	3.21	3.09	3.19
국적	중국(한족)	3.75	3.64	4.23	2.73	3.59	3.29	3.53
	중국(조선족)	3.51	3.47	3.87	2.62	3.37	2.94	3.28
	베트남	3.64	3.83	3.98	3.50	3.74	3.39	3.67
	인도네시아	3.61	3.77	3.93	4.20	3.88	3.27	3.76
	방글라데시	3.24	3.17	3.41	3.26	3.27	2.78	3.17
	파키스탄	3.48	3.19	3.63	3.75	3.51	2.75	3.36
	필리핀	3.61	3.29	3.67	3.00	3.39	2.86	3.29
근무지역	도시	3.62	3.58	4.00	3.71	3.73	3.13	3.61
	비도시	3.48	3.51	3.73	2.08	3.20	3.03	3.17
거주기간	1년 미만	3.18	3.24	3.48	2.63	3.13	2.32	2.97
	1년~ 2년	3.56	3.50	3.69	2.58	3.33	2.92	3.25
	2년~ 3년	3.70	3.55	3.98	2.94	3.54	2.86	3.41
	3년 이상	3.67	3.68	4.09	3.39	3.71	3.11	3.59

유튜브와 플리커 등 소통·공유형이 그 다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구성원들과는 중요한 날에 초대 받거나, 공동의 목적을 위해 집단적 참여를 할 수 있는 매우 밀착되어 있는 관계라고 응답한 사람이 96명 정도로 조사되어 상호작용의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동체와 외부(공동체의 밖) 간 연결성에 대한 인식에서 격차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이주 노동자 사이버 공동체는 비교적 강력한 동질성을 지니고 있으며 자족적이고 독립적인 형태이나 보다 큰 주류 사회와 소통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는 공동체임을 보여 준다.

2) 이주 노동자 ‘사이버 공동체’의 사회자본과 문화적응

(1) 사회자본과 문화적응에 대한 인식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신뢰, 규범, 네트워크, 정치 참여의 사회자본 4개 범주에 대해 질문한 결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식은 속성별로 근소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통합적 문화적응에 대한 인식 역시 속성별로 근소

한 차이를 나타내었다(표 4; 그림 4, 5, 6, 7).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 보다 특히 정치 참여 부분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적별로도 각 항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두드러진 항목은 네트워크 부분으로 한족과 베트남이 다른 국적의 이주자보다 높고 정치참여 부분에서는 인도네시아 출신들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도시 지역 근무자들의 정치참여가 중소도시 지역 근무자들보다 비교적 높은 편이며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이 긴 이주자의 정치참여가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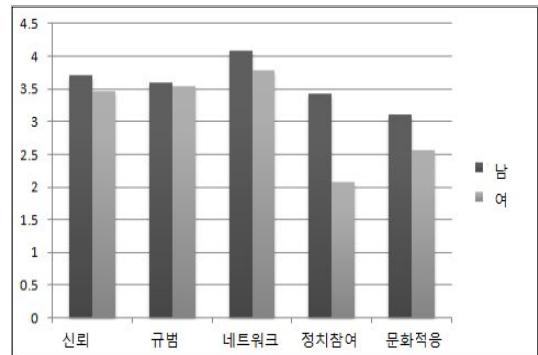


그림 4. 성별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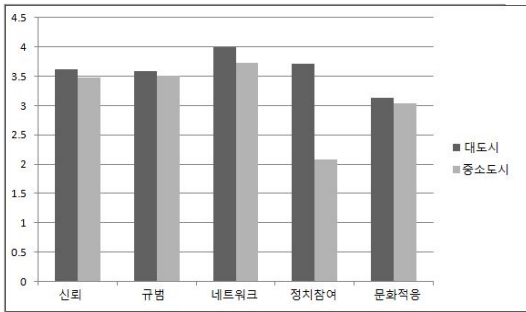


그림 5. 근무 지역별 국적별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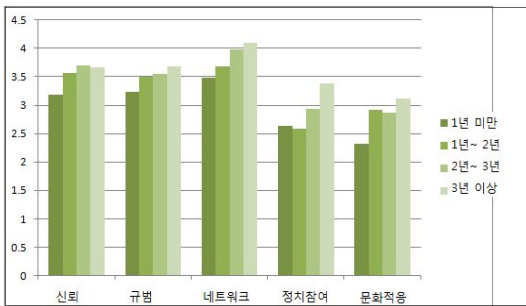


그림 6. 거주 기간별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응

(2) 이주 노동자 공동체의 사회자본의 특성과 문화적응과의 관련성

사회자본 요소인 신뢰, 규범, 네트워크, 정치참여의 네 범주 간 상관분석 결과 유의확률 0.000으로 0.5 미만이므로 네 범주는 서로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5). 그 중 신뢰는 네트워크, 규범의 양 자와 특히 관련성이 높으며 규범은 네트워크와 상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규범적 요소가 신뢰와 네트워크 요소와 모두 상관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구성원 간 친화력, 정보에 대한 믿음, 교류 빈도, 정서적 도움, 활동 만족도, 활동에 대한 자긍심 가치 추구의 동일성, 불협화음에 대한 내부 규칙에 대한 동의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또한 규범적 요소는 '의사 결정'과 '구성원 간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높은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주 노동자 사이버 공동체 활동에서 가치의 동일성이나 내부 규칙에 대한 만족도가 신뢰와 네트워크 영역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어 향후 공동체 운영이나 활동 방향 설정에서 원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이 이주 노동자의 문화 적응에 대한 영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요인에 대한 구형성 검정의 유의확률이 이 0.000으로 나타나 변수들 간 상관관계는 유의적이나 요인분석의 대상 여부를 위해 분석적합성분석을 실시한 결과 Kaiser-Meter-Olkin의 측도가 0.858로 기준치 0.50보다 높게 나타나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로 확인되었다. 우선 요인들에 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요인 분석에서 공통요인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을 한 결과 15개의 변수 중 공통성 값이 0.5 이하인 정보의 신뢰성과 활동의 제약성, 오프라인의 만남을 분석에서 제외하고 베리맥스 4회 반복 계산에 의해 요인을 수렴, 추출하였다. 고유치(eigen value)가 1.0 이상인 요인은 총 3개이며 이들은 전체 분산의 65% 이상을 설명하고 있다. 추출된 요인들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크론바하 알파 계수(Cronbach Alpha Coefficient)

표 5. 사회자본 범주 간 상관관계

		신뢰	규범	네트워크	정치참여
Pearson 상관	신뢰	1.000	.762	.765	.495
	규범	.762	1.000	.796	.549
	네트워크	.765	.796	1.000	.482
	정치참여	.495	.549	.482	1.000
유의확률	신뢰		.000	.000	.000
	규범		.	.000	.000
	네트워크	.000	.000	.	.000
	정치참여	.000	.000	.000	.

표 6. 설문에 대한 요인 분석

변 수	성분			공통성	요인군	Chronbach alpha 계수
	1요인 (e=7.797)	2요인 (e=1.689)	3요인 (e=1.015)			
활동만족도	0.869	0.129	0.026	0.774	신뢰와 연대	0.7767
정서적 도움	0.865	-.020	-.115	0.761		
참여도	0.851	0.269	0.071	0.799		
만남의 빈도와 지속성	0.796	0.238	0.125	0.711		
친화력	0.755	0.207	0.410	0.772		
민주적 의사결정	0.041	0.890	0.109	0.647	규범	0.7328
수평적 관계	0.226	0.806	0.110	0.638		
내부 규칙 여부 및 동의	0.326	0.685	0.195	0.600		
동일가치추구	0.324	0.646	0.177	0.728		
정치이슈토론	0.123	0.154	0.905	0.854	정치 참여	0.7225
시민운동참여	0.146	0.169	0.884	0.827		
개인문제토론	0.462	-.113	0.626	0.605		

를 조사하고 공통된 속성을 파악한 후 각 각에 대해 신뢰, 규범, 정치 참여로 명명하였다. 각 요인군의 신뢰도가 0.7을 넘어 내적 일관성이 인정되고 종속변수의  $\alpha$ 계수 역시 0.7624로 높은 신뢰성을 가짐으로써 설문지 항목의 요인의 신뢰도가 확인된바 실증 분석을 위한 적절한 자료로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주 노동자의 사회 적응에 대한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정된 독립 변수들의 각 요인별 일괄 투입 방식을 적용,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요인별 회귀방정식은 <표 7, 8, 9>

에서 모형, 분산, 계수 분석 세 개의 모형 모두 유용하며 채택된 변수들이 모두 양(+)의 방향을 보여 이주 노동자 사이버 공동체 의 사회자본이 한국 사회의 문화적응에 정비례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표 9>의 표준화계수에 의하면 세 개의 독립변수들 중 정치참여가 통합형 문화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 신뢰성, 그리고 규범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이버 공동체에서 형성되는 정치 이슈, 개인 문제 토로, 시민운동 참여가 이주 노동자들의 문화적응 특히 통합형 문화 적응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분석

표 7. 모형요약 분석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1	.811 <sup>a</sup>	.657	.648	.507

a. 예측값: (상수), 신뢰와 연대, 규범, 정치참여

표 8. 분산 분석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1 회귀모형	57.034	3	19.011	74.087	.000 <sup>a</sup>
잔차	29.766	116	.257		
합계	86.800	119			

a. 예측값: (상수), 신뢰와 연대, 규범, 정치참여

b. 종속변수: 문화적응

표 9. 계수 분석

종속변수	요 인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문화 적응 (통합적 문화 적응)	신뢰와 연대	활동만족도	.415	7.631	.000
		정서적 도움			
		참여도			
		만남의 빈도와 지속성			
		친화력			
	규범	민주적 의사결정	.147	2.701	.008
		수평적 관계			
		내부 규칙 여부 및 동의			
		동일가치추구			
	정치 참여	정치이슈토론	.681	12.519	.000
		시민운동참여			
		개인문제토론			

으로 궁극적으로 사이버 공동체의 사회자본 증대는 이주 노동자의 사회통합에 보완적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특히 이주노동자의 정치 참여는 이주 노동자 집단의 현실적 문제의 분출을 수렴하는 다양하고 긍정적인 방식을 축적하고 나아가 한국 사회의 시민으로 적응하는 데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 4.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 흡수된 이주 노동자의 사이버 공동체 참여 특성에 대한 질적, 양적 방법을 통해 측정하고 공동체에서 형성되고 재생산되는 사회적 자본의 특성은 어떠한지 그 사회자본이 그들의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지 구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연구 결과

첫째, 이주 노동자 사이버 공동체 참여 특성에 의하면 민족 단위의 사이버 공동체는 민족적, 종교적 정체성에 바탕을 둔 강력한 동질 집단으로 그 응집력의 강도가 높으며 공간에 제한되지 않으나 외부 사회와 고립적 관계를 가짐으로써 폐쇄적이다. 반면 비 민족 공동체는 민족, 국가, 거주 기간 등의 속성을 초월하여 긴밀히 접촉하고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고 특히 외부와 열려 있으며 특정 지리적 영역을 중심으로 생성, 유지되고 있다. 이

로써 민족 단위의 공동체는 '국지화된(배타적) 공동체' 유형을 비 민족 공동체는 '통합형 공동체'의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둘째, 이주 노동자들의 민족 단위 사이버 공동체 주된 참여 동기는 협업과 공유 보다는 '소통과 친목, 교류' 등이며 비 민족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참여 동기는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의 비율이 높다. 공동체 활동 참여에 장애요소로는 기기 구입과 사용 및 한국형 포털 사이트 가입의 어려움, 시간적 제약과 기기로의 공간적 접근이 용이하지 않음 등이 높게 인식되고 있어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셋째, 사회자본 요소인 신뢰, 규범, 네트워크, 정치참여의 네 범주 간 상관분석 결과 네 범주는 서로 유의한 영향을 주며 특히 신뢰는 네트워크, 규범의 양 자와 특히 관련성이 높으며 규범은 네트워크와 상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규범적 요소가 신뢰와 네트워크 요소와 모두 상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 노동자 사이버 공동체 활동에서 가치의 동일성이나 내부 규칙에 대한 만족도가 신뢰와 네트워크 영역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어 향후 공동체 운영이나 활동 방향 설정에서 원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사이버 공동체 사회 자본이 한국 사회에서의 바람직한 통합형 문화적응에 정비례적인 영

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이주 노동자의 사이버 공동체에서 형성되는 정치 이슈 토론, 개인(인권) 문제 토론, 시민운동 참여 등이 이주 노동자들의 문화적응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들의 문화적응에 그들의 변수로 채택한 각 요소 중 정치 참여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주목된다. 사이버 공동체의 소통과 관계 맺음을 통해 양산되는 개인적 문제 토론, 공동체 내부 문제 논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참여 등에서 오히려 실제 원문화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과감히 주체들 사이의 평등성을 지향하는 것으로 유추 해석된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의 이주자들의 공동체 구성과 활동에 대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보여주고 아울러 학문적 접근에의 다면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다문화주의를 넘어 상호문화주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오늘날, 이주자들의 사이버 공동체 연구는 그들의 공동체성을 이해하고 상호문화성을 발견하는 매우 주요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네트워크는 일상생활의 상호작용이며 사회적 배제와 불평등이 양산되는 사회적 실천이 가감 없이 반영되는 민족 단위의 공동체 연구는 그런 점에서 더욱 고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이버 공동체의 정치 참여는 사이버 상에서 확대되는 새로운 방식이며 사회의 변화와 정보기술의 발달에 기인한 것으로, 정치 참여 방식의 다변화, 참여 주체의 자발성, 영역의 가변성 등을 잘 보여 주며 빠른 확산 속도를 가져 그 파급력이 있다. 본 연구에서 밝히는바 그러한 파급력은 오히려 우리 문화와 그들 문화가 소통하고 통합되는 부분에서 중요한 매개로 작동될 가능성을 보여 이주 노동자들의 사이버 공동체는 이주 노동자들의 사회에 대한 합의와 협력을 도출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제로서 호명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가 바람직한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연적인 주체 설정과 이해의 성숙한 논의로의 지평을 넓히는 인프라 구축의 자료(매개)로 제공될 수 있고 동시에 동일 주체의 연구 활동과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기를 제안하고 희망한다.

## 주

- 1) 질 발렌타인 지음. 박경환 역, 2009, 논형에서 재인용.
  - 2) Bondi, L. and Peake, L.(1988) Gender and city: Urban politics revisited. In Little, J., Peake, L. and RichardsON, p.(eds), Women in Cities Gender and the Urban Environment. London:Macmilan.
  - 3) 하워드 라인골드 지음·이운경 옮김, 2003, 『참여군중』에서 재인용.
  - 4) Bulmer, M., 1986, Neighbours: The Work of Philip Abram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5) 이규정, 이동훈, 차재필(2010). 소셜 미디어의 확산과 법제도적 시사점.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보고서, p.10.
  - 6) Warren, R. B. and Warren D. I.(1977), The neighbourhood Organizer's Handbook. India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정체성, 상호작용(응집의 강도), 외부와의 연계의 세 가지 차원에 기초한 공동체의 유형은 국지화된 공동체, 통합적 공동체, 일시적 공동체, 단기 체류 공동체, 수동적 공동체, 분열된 공동체 등으로 구분된다. 국지화된 공동체는 집단의 내적 통일성을 가짐과 동시에 외부 타인과 구별되는 집단의 차이를 역설하고 '외부인'을 배제하려는 노력을 강화하는 특성의 배타적 공동체로 강력한 자족적, 동질적 특성을 지닌다. 이에 비해 통합적 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 긴밀하게 접촉하고 관심사를 공유하지만, 외부로 열려 있고 보다 큰 사회에도 참여하며 일시적 공동체는 인구 이동은 집단적이나 조직은 거의 없으며 내부 접촉보다는 오히려 외부 접촉이 강한 특징을 가진다.

## 문헌

- 김병선 2003, 웹 이용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심리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의 영향력 차이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상국, 2011, 사회 연결망 분석(SNA)과 산업공학, 대한산업공학회 IE 매거진, 18(1), 24-32.
- 김의영, 2003, 미국 결사체 민주주의 이론에 대한 소고, 한국 NGO학회 2003년도 연례학술회의 자료집.
- 노기영, 2008, 뉴미디어의 의사소통성과 쌍방향성, 한국사회의 방송통신 패러다임 변화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8-15.
- 박경환(역), 2009, 사회지리학질, 논형(Valentine Gill, 2001, Social Geographies, Prentice Hall).
- 박행웅(역), 2008, 인터넷 갤러리, 한올아카데미,

- 서울(Manuel Castells, 2001, *The Internet Galaxy*, Oxford University Press).
- 서이종, 2002, 인터넷 커뮤니티와 한국사회, 한울 아카데미, 서울.
- 송경재, 2006, 자발적인 시민참여 사이버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에 관한 사례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19), 221-255.
- 송현주, 2011, 사회 연결망을 통한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필요성과 전망, 커뮤니케이션 이론, 7(2), 75-104.
- 유석진, 2000, 정보화와 21세기 한국정치, 세종연구소서 편, 국가전략, 6(2). 서울.
- 윤성이, 2001, 정보사회의 명암과 시민사회의 역할, 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 공동학술회의 발표문.
- 윤홍근(역), 1999, 집합행동과 자체지도, 자유기업센터, 서울(Elinor Ostrom, 1990,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이규정·이동훈·차재필, 2009, 소셜 미디어의 확산과 법제도적 시사점,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보고서.
- 이운경(역), 2003, 참여군중, 황금가지, 서울(Howard Rheingold, 2002, *Smart Mobs*, Perseus)
- 이재현(역), 2000, 인터넷 연구방법: 쟁점과 사례, 커뮤니케이션 북스, 서울(Jones, Steve, ed., 1999, *Doing Internet Research: Critical Issues and Methods for Examining the Net*. Thousand Oak, California : Sage).
- 장용호, 2002, 사이버공동체 형성의 역동적 모형, 집문당, 서울.
- 정연정, 2002, 인터넷과 집단행동의 논리: 올슨(Olson)의 집단행동의 논리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6(1).
- 조진호, 2002, 가상공간에서 합의에 의한 도덕규범의 확립 시도, 서울대학교 아시아 태평양교육발전연구단.
- 주성수, 1999, 시민사회와 제3섹터, 한양대학교 출판부, 서울.
- 황성기·황승흠, 2003, 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 사이버 공간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커뮤니케이션북스, 서울.
- 황용석, 2001. 인터넷 이용과 정치참여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제16대 총선 기간 동안 인터넷 정치사이트 이용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보, 45(3).
- Alderson, B., 1991,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s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 Australian Bureau of Statis, 2002, Measuring Social Capital-Discussion Summary and Next Steps, *Discussion paper*.
- Berry, J. W., 1980, Acculturation as varieties of adaptation. In A. M. Padilla(Ed.), *Acculturation: Theory, models and some new findings*(pp.9-25). Boulder, CO: Westview Press.
- Berry, J.W., 1990, Psychology of acculturation: Understanding individual moving between cultures. In R. W. Brislin(Ed.), *Applied cross cultural psychology*, 232-253, London: Sage.
- Berry, J.W., 1991, Understanding and managing multiculturalism. *Psychology and Developing Societies*, 3, 17-49.
- Berry, J.W., 1992, Immigration and adaptation in a new society, *International Migration*, 30, 69-85.
- Berry, J.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5-34.
- Berry, J.W., 2005, Acculturation: Living successfully in two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 29(3), 697-712.
- Bondi, L. and Peake, L., 1988, Gender and city: Urban politics revisited. In Little, J., Peake, L. and RichardsON, p.(eds) *Women in Cities Gender and the Urban Environment*. London: Macmilan.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G. Richardson, (ed), *Handbook of Theory and Reach for Sociology of Education*. Westport. CT: Greenwood Press.
- Bulmer, M., 1986, *Neighbours: The Work of Philip Abrams*, Cambridge University Press. and *Research of the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 Greenwood Press.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1.
- Dasgupta, P., 2005, Economics of Social Capital, *Economic Record*, 81, 2-21.
- Day, G. and Murdoch, J., 1993, Locality and community: coming to terms with place, *Sociological Review*, 41, 82-111.
- Dorothy, R., 1997, Philanthropy in Action: Building Community, *National Civic Review*, 86(4).
- Ernest G., 2003, *The Psychoanalytic Movement: The Cunning of Unreason*, Blackwell Publishers.
- Fernback, Jan and Thompson, Brad., 1995, *Virtual Vommunities: Abort, Retry, Failure?*
- Gans, H. J., 1962, *The Urban Villagers*, The Free Press, New York.
- Hervert, D. T. and Raine, J. W., 1976, Defining communities within urban areas. *Town Planning Review* 47, 325-38
- Jeffers, S., Hoggett, P. and Harrison, L., 1996, Race, Ethnicity and Community in three localities, *New Community*, 22, 111-26.
- Milvrath, L.W. and Goel. M.L., 1997, *Political Participation*, Rand McNally, Chicago.
- Nguyen, H.H., Messe, L.A. and Stollak, G.E., 1999, Toward a more complex understanding of acculturation and adjustment: Cultural involvements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inv vietnamese youth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0(5), 5-31.
- Nguyen, H.H., and von Eye, A., 2002, The acculturation scale for Vietnamese adolescents (ASVA): A bidimensional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20(1), 5-31.
- Norris, P., 2002, *Democratic Phoenix: Reinventing Political Activ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 Olson, M., 1971,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US.
- Phinney, J.S., Horenezyk, G., Liebkind, K, and Vedder, P., 2001, Ethnic identity, immigration, and well-being: An interac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Issues*, 57, 493-510.
- Phinney, J.S., and Ong, A.D., 2007,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ethnic identity: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Courseing Psychology*, 54(3), 271-281.
- Putnam, R.D., 1993, *Making Democracy work :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ew Jersey.
- Putnam, R.D., 2000, *Bowling Alone*, Simon & Schuster, US.
- Rheingold, H., 1993, *The Virtual-Community: Homesteading on the Electronic Frontier*,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 Silk J., 1999, 'The dynamics of community, place and identity', *Environment and Planning A*, 31, 5-17.
- Tonnies, F., 1955, *Community and Association*,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 Tonnies, F., 1887, *Community and Society, new edn 1963, transl. by C. P. Loomis*, Harper & Row, New York.
- Warren, R.B. and Warren, D.I., 1977, *The Neighbourhood Organizer's Handbook*,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Indiana.
- Webber, M., 1963, 'Order in diversity: community without propinquity', in Wingo, L. (ed.) *Cities and Spac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Baltimore, MD.
- World Bank, 2003, *Integrated Questionnaire for the Measurement of Social Capital(SC-IQ), Social Capital Thematic Group*, World Bank.

(접수: 2013.04.15, 수정: 2013.05.10, 채택: 2013.05.20)